

숨은그림찾기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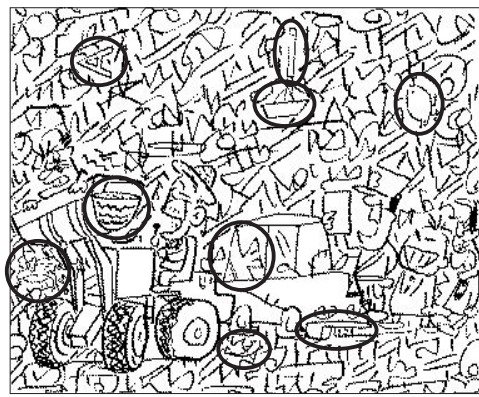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펜촉, 새집, 짐자리, 음료, 서투룩, 송사리, A자, 다리미, 은행잎

강아지와 남편의 공통점

- 1. 끼니를 챙겨줘야 한다.
2. 가끔씩 데리고 놀아줘야 한다.
3. 복잡한 말은 알아듣지 못한다.
4. 초장에 버릇을 잘못 들이면 내내 고생한다.

남편이 강아지보다 좋은 점

- 1. 돈을 벌여준다.
2. 간단한 심부름은 시킬 수 있다.
3. 휴련을 안 시켜도 대소변은 가린다.
4. 같이 외출할 때 출입 제한 구역이 적다.



지난주 정답

송사리, A자, 종이배, 열대어, 수박, 개구리, 병아리, 슬리퍼, 조각칼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광우비 <광주시 북구 문흥동>, 박내홍 <목포시 산정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8·15 광복 후 미군정하에 놓여있던 남한은 1948년 5월10일 국제연합(UN)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5·10 총선거로 제 1대 국회,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탄생했다.

1948년 5월31일 최고령 의원 이승만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해 역사적인 개원을 맞은 제헌의회는 첫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승만 임시의장을 정식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유진오 등 10명을 전문위원으로 하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 위원회'가 발족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초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은 "그러한 헌법 아래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임하지 않겠다"며 내각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승만과 대립각을 펼치던 한국민주당은 결국 '내각제적 요소가 섞인 대통령제'로 바꾼 수정안을 6월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수정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지만

이승만 쪽으로 대세가 기울면서 7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이 가결됐다.

7월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이승만 의장이 헌법에 서명, 날인하고 이를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사흘 뒤인 7월20일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52년 7월7일 제1차 개정(발췌개헌)이 이루어진 이후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9차 개정 방법으로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1949년 10월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으로써 7월17일이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로 제정되었다.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며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헌헌법 공포일인 1948년 7월17일 중앙청을 배경으로 제헌국회의원 198명이 촬영한 기념사진. 이 자료는 제헌국회의원인 고 원장길(元長吉·1912~2002)씨 소장품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이 마련하는 건국 60주년 특별전을 통해 공개된다. /연합뉴스

결정적인 헛패

4회전 1국 4보 (53~73)

白 장장호 5단 黑 이창준 5단 (포스코) (주)송림

오른다.

54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붙여 패를 쓰는 것이 좋았다. 이 수는 손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흑이 받기도 곤란하다. 흑 2로 패를 해소한다면 7까지 흑 한점을 잡고 흑을 계속 추궁해 집으로나 세력으로나 백이 유리했던 것이다.

헛패를 쓰는 바람에 실리에서 크게 뒤지게 된 장장호 5단의 희망은 이제 중앙을 얼마나 집으로 만들 수 있는냐다. 백 60으로 최대한 폭을 넓히자 이창준 5단도 흑 61부터 필사적으로 중앙에 뛰어들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참고도>

흑 53으로 때내 서로 이겨야만 하는 큰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장장호 5단은 거의 노타임으로 좌상각 54에 흑 늘었는데 이 수가 헛패로 대실착이 되었다.

이창준 5단이 재치있게 흑 55를 선수해두고 57에 이어 패를 해소해 버리자 그때서야 장장호 5단이 실수를 알아차리고 얼굴이 벌겍게 달아

바둑소식

이세돌 9단 5연승 질주

이세돌 9단이 15일 서울 한국기원에 서 열린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본선 리그에서 최원웅 5단을 180수만에 불계로 물리쳤다. 이로써 이세돌은 최근 5연승을 기록했고, 이번 대회 우승 전망도 밝았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성진 9단과 강동훈 7단이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세돌의 대항마이다.

계속되는 명인전 본선리그는 오는 22일 박정상 9단과 원성진 9단의 대결로 펼쳐진다.

국내 최고 우승상금 1억원을 자랑하는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 2시간 60초 초읽기 3회이다. 리그전 1, 2위가 결승 5연기로 우승자를 가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날씬한 종아리 만들기

▲다리를 앞뒤로 크게 벌리고 선 뒤 뒤쪽 다리의 뒤꿈치를 가볍게 반동을 주면서 위아래로 10회 정도 움직인다. 10회째가 되면 뒤쪽 다리의 무릎을 편 채로 뒤꿈치를 붙인 상태로 앞쪽 다리에 중심을 주어 천천히 무릎을 굽힌다.

▲벽을 향해 발 길이의 2배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서 벽에 어깨 너비로 양손을 댄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구부려 벽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었다가 천천히 무릎을 펴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때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리를 펴고 앉는다. 발끝을 세우고 위를 향해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이때 무릎을 구부리지 않는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16일(음 6월 14일丁巳)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굿모닝 잉글리쉬 <1204>

I heard that too. 나도 그렇게 들었어.

A: I heard that John is in town. B: I heard that too. A: Do you think he's coming over? B: Probably not. He's usually pretty busy.

A: 내가 듣기로는 존이 지금 있다고 하던데. B: 나도 그렇게 들었어. A: 그 사람이 올 것 같으니? B: 아마 안 올걸.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바빠잖니.

* pretty : 꽤, 상당히 * that : 그렇게

* 그 여자가 자기가 받은 선물을 좋아할 것 같니? = Do you think she liked her gift? * 네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니? = Do you think it'll be OK?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204>

今月も赤字(あかじ)だわ. 이번 달도 적자야.

A: 我(わ)が家(や)の經濟(けいぎ), 今月も赤字(あかじ)だわ. B: うちもそうよ, こんな不景氣(ふけいき)なのに, 物價(ぶつか)は上がるし大變(だいへん)なわ.

A: どの家(や)も同じね, でも主人(しゅじん)の會社(かいしゃ)が倒産(とうさん)しないだけでもありがたいと思わなきゃね. B: そうね, これから景氣(けいき)が上向(うわむ)くことを期待(きたい)しましょう.

A: 우리 집 경제, 이번 달도 적자야. B: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불경기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큰 일이에요. A: 어느 집이나 같군. 하지만, 남편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B: 그래, 지금부터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主人(しゅじん): 남편 * ありがたい: 고맙다 * 期待(きたい)する: 기대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81>

会不会? 할 줄 아니?

A: 你会不会打篮球? Nǐ huì bù huì dǎ lánqiú? 너 하이 부 웨이 디 란치우?

B: 我不会打篮球. Wǒ bù huì dǎ lánqiú. 워 부 웨이 디 란치우.

A: 你会不会打网球? Nǐ huì bù huì dǎ wǎng qiú? 너 하이 부 웨이 디 왕치우?

B: 我会打网球. Wǒ huì dǎ wǎng qiú. 워 하이 디 왕치우.

A: 난 농구 할 줄 아니? 난 농구 할 줄 모르면데. A: 너 테니스 할 줄 아니? B: 난 테니스 할 줄 몰라.

籃球 [lánqiú] 농구 * 打 [dǎ] (체육활동이나 역면 놀이) 하다 * 网球 [wǎng qiú] 테니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21>

萬壽無疆(만수무강) 일만 만, 목숨 수, 업을 무, 지경 강

만수무강(萬壽無疆)은 만년의 수명은 누리고 또 다함이 없이 살라는 기원을 담은 말로, 보통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장수(長壽)를 빌면서 말씀 올리는 덕담(德談)이다.

이 말의 유래는 '시경(詩經)'에서 찾아진다. '민풍'에 있는 '칠월(七月)'이라는 시는 주(周)나라 성왕(成王)의 섭정(攝政)이었던周公(周公)이 성왕에게 농사의 어려움을 알려주기 위한 시였다. 주 왕조의 농업기초를 마련한 후작(后稷)과 공유(公劉)의 내력을 시로 엮어 봉사인 악사(樂師)에게 매일 노래하게 하였는데 그 8번째 시에, "2월에는 얼음을 쪼개고, 3월에는 얼음 창고에 넣고, 4월에는 이른 아침에 얼음을 바치고, 부추로 제사를 지낸다. 9월에는 서리가 내리고, 10월에는 마당을 깨끗하게 하며, 두 단지의 술로 잔치를 베풀어 얼음과 양을 잡아 대접하고 공회당에 올라가 쇠뿔잔의 술을 서로 권하며 만수무강(萬壽無疆)을 빈다."라고 되어 있다.

또 '소아(小雅)'의 '남산유대(南山有臺)'라는 시는 현자(賢者)를 얻어 국가를 잘 다스려 태평성대의 기초를 다지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그 중 현자의 덕을 찬미하고 장수를 축원하면서 '만수무강'을 노래하였다.

<한여원(韓喜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